

# 경성부 확장과 교외(郊外)인식\*\*

- 1920~30년대 신문의 교외탐방 기사를 중심으로 -

## The Expansion of Administrative Districts in Gyeongseong and the Perception of the Suburbs

- An Analysis of the a featured articles on the suburban areas in the newspaper, 1920~1930s-

Jung, Yeo-jin 정 여 진 \* 정회원, 한양대학교 건축학과 석사과정

Han, Dong-soo 한 동 수 정회원, 한양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Abstract:** This study determines the meaning of “Suburb” of the Gyeongseong-bu before the expansion of administrative district through newspaper articles covering the suburbs. To examine the spatial perception and composition of the suburbs, this study analyzed the daily newspapers of the 1920s ~ the 1930s and used the laws, statistics, investigations, and maps of that time. The newspaper articles that report suburban areas were a means of promoting the policies and intentions of colonial authorities, but simultaneously, they tried to find out the reality of suburban areas by visiting them. The term of ‘Suburb’ in these articles refers to the neighboring areas (outskirts) of Gyeongseong-bu. However, the traditional and modern suburban concepts are double revealed. The suburban featured in the article are not merely geographical, but more specifically classified through the consciousness of life at the time. This distinction can be divided into South of the Han River, northern, western, eastern, and southern areas depending on the four directions. Not only that, this area can be separated by the Four gates of Fortress Wall of Seoul, which distinguished the traditional suburban spaces of the Joseon Dynasty. In addition, as transportation to Gyeongseong became important, these districts of tram lines in each region became a center for the suburbs. The zoning systems and regional development plans announced by the Joseon Planning Ordinance in 1934 were also affected. Furthermore, The suburb has various meanings. First, Suburban area recognized as a good place to live because it has an idyllic landscape that contrasts with the city. Second, it was recognized as an area that needed to be developed along with the city plan of the Gyeongseong Ministry. Third, the suburbs exist as spaces that share various functions such as housing problems, poverty, industrial problems, and the disposal of other wastes with Gyeongseong ministry. Therefore, suburban areas had many difficulties in developing.

**Keywords:** Great Seoul, Gyeongseong, Suburbs, Suburban Area, Urban Plan, Colonial Newspaper  
대경성, 경성, 교외, 교외지역, 도시계획, 식민지 신문

## 1. 서론

경성부는 1936년 경성시가지계획(京城市街地計劃)을 통해 기존 행정구역 36.18km<sup>2</sup>에서 136km<sup>2</sup>로 확장시켰다. 한일병합 이후인 1914년, 식민권력이 한성부를 식민지 수도 경성부로 개칭하고, 그 행정구역을 일본인 거주지를 중심으로 축소시킨 지 20여년만의 일이었다. 조선왕조의 수도 한성부가 본래 한양도성 바깥의 경계, 즉 성저십리를 포함하는 대규모 공간이었음을 감안한다면 행정구역의 축소는 조선후기부터 진행된 도심의 포화상태를 무시한 채 주변부 지역의 성장을 배제하는 결과를 낳을 수밖에 없었다. 결국 병합

이후 도심부 성장이 가속화될수록 인구의 폭발적 증가, 지가 상승, 주거환경 악화 등의 문제가 심각해지고, 1930년대 전시체제기 전환에 따라 경성부의 기능을 변경시키기 위한 조치로서 비로소 행정구역이 확장될 수 있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1920~30년대 전반에 걸쳐 ‘문 밖’, ‘부외’, ‘시외(市外)’라고 불리던 경성부 인접지역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기 시작한다. 이미 1920년대 초반부터 행정당국 및 일부 지식인 계층에서 경성부를 확장하기 위한 구상이 착수되었다. 1921년 경성도시계획연구회(京城都市計劃研究會)가 조직되어 경성부 인접 면(面)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구체적인 계획안을 수립한 것이다. 경성도시계획연구회는 주로 재경(在京) 일본인들을 중심으로 조직되었으나, 조선인들 사이에서도 고질적인 도시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인접지역을 경성부로 편입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나타나

\*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 pxnsxx0y0@gmail.com

\*\* 이 논문은 2019년도 한양대학교 인문사회예체능 전문학술논문 교내 연구 지원 사업의 연구비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고 있었다.

특히 당시 일간지 사회면에 연재된 교외탐방기사는 인접지역에 대한 개발자(혹은 식민자)적 시선 외에도 경성의 주민들의 공간인식을 반영하고 있었다. 신문에서는 경성부 인접지역을 교외로 지칭하며 그 실황을 소개했다. 인접지역이 경성부와 통합, 발전할 수 있다는 논조를 통해 교외로 지목되는 공간을 직접 탐사하여 보도한 것이다. 그들은 인접지역을 근대적 ‘교외(郊外)’로 조명하면서 도시와 마찬가지로 발전될 필요가 있음을 주장했다. 그러나 이 시기 교외가 주요한 화두로 떠오른 것은 단순한 ‘근대적 현상’일 뿐만 아니라, 이미 조선후기부터 변동해온 교외의 성격과 그 궤를 같이하고 있었다.

조선 초기만 하더라도 한양은 사대문 안팎의 성벽을 경계로 그 위상이 확연히 차이가 나는 공간이었다. 그러나 조선후기 사회변동을 통해 점차 성외 지역의 인구가 증가하고, 다양한 계층이 거주하면서 해당 지역에 대한 개발제한을 해제시켜달라는 요구가 빗발치고 있었다. 하지만 일제강점기 이후 이러한 성장과 변화양상이 정체되면서, ‘도시’와 ‘교외’의 질적 차이가 점차 두드러지게 된다. 때문에 1920년대 성외지역에 대한 관심은 발전이 침체된 해당 지역에서는 당연한 일이었을지도 모른다. 다만 이러한 문제는 ‘도시의 포화상태에 따른 도시의 확장’ 및 ‘근대적 개발의 필요’라는 표면적 이유로 다뤄질 수 밖에 없었다.

현재까지 축적된 일제강점기 경성부 인접지역, 즉 교외에 관한 선행연구는 주로 1920년대부터 시작된 교외주택지 건설에 관한 연구, 교외선(郊外線)을 둘러싼 지역 주민과 행정당국의 갈등을 중심으로 다룬 연구, 경성부의 도시계획 차원에서 교외의 의미를 조명하는 연구 등이 있다. 특히 교외지역 가운데 경성부의 동부교외를 중심으로 살펴보는 연구가 다량 진행되었으나 일제강점기의 경성부 교외를 총괄하여 인식의 변화를 추적한 것은 부족한 실정이다. 이 점에서 경성부의 교외인식을 비교적 포괄적으로 다룬 김하나(2008)의 연구가 주목할 만하다.

김하나는 1920년대부터 1930년대 후반까지 동아일보 기사에서 드러나는 경성의 교외지의 범위를 파악하고, 그 성격을 유형별로 분류하였다. 연구에 따르면 교외는 유락지와 개발지라는 두 층위의 인식이 중첩되어 있으며, ‘반도시’와 ‘도시’의 이중적인 특성이 동시에 드러나는 공간이다. 그러나 1930년대 후반에 이르면 교외라는 어휘가 점차 상실되고 있는데, 이 지역이 경성에 편입되면서 교외라는 인식이 점차 사라지고, 전시체제기에 따른 교외지에 대한 관심 역시 감소하고 있다는 사실에 기인하고 있음을 밝혀냈다.

필자는 이와 같은 선행연구에 덧붙여 1920~30년대 교외인식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교외의 존재는 도시의 발달에 따른 물리적 팽창의 결과로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중세부터 현재까지 일종의 ‘의미 변화’를 겪은 공간이라고 해석하고자 한다. 조선시대부터 전통적 도시공간인 ‘한성’이

성벽을 경계로 성외지역과 발전을 함께 하고 있었으며, 일제강점기 이후 경성부의 도시 발달, 정책, 계획 등에 의해 형성된 경성부의 인접지역은 이른바 근대적 ‘교외’ 지역으로서 그 의미가 변화해갔던 것이다.

본고에서는 1920년대부터 경성부 확장 이전인 1936년까지 경성의 발전 및 확장에 따라 주목받게 된 교외의 상황을 다루는 기사를 연구대상으로 삼는다. 연구대상으로 삼는 기사는 총독부 기관지였던 「매일신보(每日新報)」와 민간지인 「조선일보(朝鮮日報)」의 사회면 특집기사로서, 1920년대 후반부터 1936년 경성부 행정구역 확장 이전까지 연재되었다. (<표 1> 참조) 그러나 ‘탐방’ 형식의 기사가 아닐지라도, 도시계획의 내용을 담거나 교외지역의 실태를 진단하는 여러 일간지의 기사를 참고하였으며, 당시의 법령, 통계, 조사서, 지도 등을 충분히 활용하여 교외의 의미를 재구성하고자 했다.

<표 1> 1920~30년대 교외탐방 연재기사

연재기간	기사제목	편수	신문(지면)
1929.03.17.~1929.04.08	明日의 京城 府外—巡記	23	매일신보 (2면)
1933.09.29.~1933.10.17	大京城 候補地 선보기 巡禮	14	조선일보 (2면)
1934.03.24.~1934.04.19	자라나는 明日의 京城 大都市計劃과 그 理想	20	매일신보 (4면)

연구는 다음과 같은 구성으로 전개된다. 2장에서는 연구대상으로 삼는 교외탐방기사의 특징을 살펴봄으로써 당시의 공간인식을 살펴볼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3장에서는 경성부의 교외에 관한 당대의 공간인식 및 공간구분의 양상을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4장에서는 세부적인 교외지역 구분에 의거하여 일간지에서 드러나는 각 지역의 개발 양상과 그에 따른 교외지의 이미지와 실태에 대해 분석할 것이다.

## 2. 1920~30년대 ‘교외’ 탐방 연재기사의 특징

### 2.1 식민지 사회 신문과 사회면의 성격

식민지 사회에서 신문이 철저한 언론 통제를 받고, 당국의 정책과 사상을 대변하는 역할을 해왔음은 부정할 수 없다. 조선에서도 1910년 강제병합 이후 민간지가 모두 폐간되어 총독부 기관지만이 발행되고 있었으나, 1919년 3·1운동의 여파로 식민권력의 통치기조가 문화정치를 표방하면서 비로소 민간지가 허용되었다. 이 때 창간된 것이 「조선일보」, 「동아일보(東亞日報)」 등이다.

그러나 식민권력의 민간지 허용은 피식민자들의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일종의 유희정책으로, 친일진영으로부터 발간된 신문을 통해 여론을 감시하려는 의도가 반영된 것이었다.<sup>1)</sup> 따라서 이 때 허용된 민간 신문들도 규제와 검열을 피할 수 없었다. 규제를 통한 신문의 발행

중단은 곧 수익구조에 치명적인 타격을 가져왔기 때문에 민족지(民族誌)로서의 신문이 강력한 저항의 목소리를 가졌다가, 피식민자의 상황을 완전히 대변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니다. 더욱이 항일(抗日) 성격을 가지는 보도라 할지라도, 발행부수를 확대하기 위한 일종의 상업적 전략으로서 채택되는 경우도 부지기수였다.

때문에 이 시기 발행된 신문은 조선의 주체적 '정치'가 부재된 상황 속에서 식민모국의 대·내외적 소식을 번역하는 데 그쳤다.<sup>2)</sup>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의 민간신문은 "합법적으로 조선인의 주장을 조금이라도 대표하는 유일한 기관"으로서, 조선어 신문이 "조선인 200명 중에 1부 밖에 팔리지 않을지라도 그 신문장이 헤어지도록 돌려가면서 읽을 정도"로 민중에게 주는 영향이 컸다.<sup>3)</sup> 이러한 상황 속에서 민간지가 조선 사회를 대변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사회면에서였다.

신문의 사회면을 담당하는 부서는 정치면에서 다루지 못하는 조선의 각종 뉴스—범죄, 사상 대립, 운동계의 현황, 유명인의 동정—뿐만 아니라 총독부와 경성부청 및 기타 도청의 소식까지 전담했다. 사회면은 가장 많은 인기를 독점하고 있는 지면으로서, 조선신문의 유일한 '활무대(活舞臺)'였으며,<sup>4)</sup> "조선인의 생활사(生活史)의 기록이자 그 배후에 조선인의 사회심리가 잠재하고 시대정신을 포용"하고 있다고 평가받고 있었다.<sup>5)</sup> 이러한 사회지면의 성격과 구성 방식은 1920년대 이래 총독부의 기관지 성격을 가졌던 「매일신보」를 포함한 모든 신문에서 채택한 편집체제였다.<sup>6)</sup>

## 2.2. 1920~30년대 교외탐방기사의 등장

본고에서 연구대상으로 삼는 1920~30년대 교외탐방기사 역시 사회면에 연재되었는데, 앞 절에서 언급한 것처럼 식민지 신문의 이중적 성격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 경성부의 '교외'를 탐방하고 조명하는 기사가 등장하게 된 것은 식민권력으로부터 의도된 것이었다. 그러나 사회면은 조선의 실정을 반영하여 기록되는 지면으로서, 교외지역을 조선 시대부터 도성 안과 활발한 교류를 맺고 변화해온 공간으로 조명함과 동시에 근대적 시설이 도입되는 양상을 직접 살펴보고 기록하고 있었던 것이다.

실제로 연구대상 가운데 가장 이른 시기인 1929년에 매일신보에 기재된 '명일의 경성 부외 일순기(明日의 京城 府外—巡記)'의 경우, 같은 해 정월 경성도시계획연구회(京城

都市計劃研究會) 임시총회에서 진행한 나오키 린타로(木直倫太郎)<sup>7)</sup>의 강연을 토대로 작성되었다. 「매일신보」의 연재기사에서 나타나는 '명일(明日)의 경성(京城)'과 같은 슬로건은 이미 "경성의 내일이 시외에 있다"<sup>8)</sup>는 나오키의 말을 그대로 인용한 것이었다. 더욱이 기사에서는 부민들이 가져야하는 태도를 강조하고 있는데, 이는 식민자적 시선이 여실히 드러나는 부분이기도 하다. 뿐만 아니라 이미 발간된 경성부의 도시계획안 및 조사자료를 토대로 도시계획에 필요한 정책인 수익자부담제도, 구역정리를 위한 건축물법 등을 비교적 상세히 기술하고 홍보하고 있었다.

경성부의 도시계획안을 수립하려는 움직임은 1920년대 초부터 시작되었는데, 이 운동의 중심이 되는 조직인 도시계획연구회는 경성에 거주하는 일본인 유산계층을 중심으로 조직되었다. 이들은 일찍부터 '경성의 공업도시화'를 목표로<sup>9)</sup> 경성부 인접 면을 조사하고 행정구역의 확장책을 강구했다. 연구회는 본래 구역을 넓히기 위한 계획에 있어 필요한 실지조사를 '비밀리'에 진행하고자 했으나 신문기자에게 들키는 바람에<sup>10)</sup> 경성부가 확장될 것이라는 세간의 인식에 확신을 심어주었던 것이다.

도시계획연구회는 이미 1924년 말 자체조사를 끝냈으며, 경성부와 도시계획연구회가 구상한 도시계획의 주요내용은 1926년 말 어느 정도 완성된 것으로 보인다. 경성부가 1926년 토목과에 임시도시계획계를 설치하고 이 자료를 이어받아 같은 해 『경성도시계획구역설정서(京城都市計劃區域設定書)』(1926)를 발간했고, 경성부 내외의 지형측량 및 비행사진 촬영 등을 완료했다. 다음 해에는 『경성도시계획자료조사서(京城都市計劃資料調査書)』(1927)를, 최종적으로 『경성도시계획조사서(京城都市計劃調査書)』(1928)등을 발간했다.<sup>11)</sup>

그러나 경성부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활동한 도시계획연구회의 계획안은 총독부의 부정적인 태도와 재원의 문제 등으로 인해 실현될 수 없었다. 경성부가 확장안에 박차를 가하는 와중에도 이 계획안에 부정적인 태도를 보인 것은 비단 총독부만이 아니었다. 시가지건축법, 구역선정, 도로개수 등 도시계획에 필요한 법안을 제정하지 않고 재원도 모

1) 채백, 신문, 대원사, 2003, p.96~104

2) 김을한, 뒤로 본 세상 社會의 裏面暴露(第一回), 新聞界의 内幕, 별건군 제34호. 1930.11.01. p.126~127

3) 朝鮮新聞界縱橫談, 동광 28호, 1931.12.01, p.77

4) 김을한, 뒤로 본 세상 社會의 裏面暴露(第一回), 新聞界의 内幕, 별건군 제34호. 1930.11.01. p.126~127

5) 社會的表現과讀者의省察, 조선일보, 1923.11.22

6) 유선영, 식민지 신문 '사회면'의 감정정치—사회적 사실들의 정치적 서사화, 한국언론정보학보 67권, 2014, p.178

7) 나오키 린타로(木直倫太郎, 1876.12.01.~1943.02.11.)는 일본의 도시계획가로서 오사카의 시구개정과 도시계획을 담당했으며, 1923년 관동대지진 이후 제도부흥원 기감을 지내고 1924년에는 외국인 부흥국의 장관으로 취임했다. 이 시기 그는 조선에도 방문하여 경성 및 부산의 도시계획에 관련된 강연을 진행했다. 1933년에는 만주국 건국에 참여하여 만주 전역을 답사하고 치수, 도로 정책 등을 입안하는 등 지속적으로 식민지 도시 건설에 영향을 미쳤다.

8) 都市計劃의 絶叫 決議와 講演 경성도시계획연구회에서 明日의 幸福은 爲해, 매일신보, 1929.01.18.

9) 염복규, 1920년대 京城도시계획운동의 전개와 성격, 국사관논총 107집, 2005, p.9

10) 漸進的의擴張策, 동아일보, 1922.11.10

11) 1920~30년대 도시계획과 관련된 경성부의 자료서는 다음을 참조: 염복규, 1920년대 京城도시계획운동의 전개와 성격, 국사관논총 107권, 2005. 조세호·김영민, 경성부 도시계획서 상의 공원녹지 개념과 현황의 변화 양상, 한국조경학회지 통권 제47권 2호, 2019

자란 상태에서 이를 시행하면 결국 “경제적으로 실력이 약한 자가 방축 당하게” 되므로 그 대부분인 조선인들은 안정을 잃을 수밖에 없었다.<sup>12)</sup>

그러나 조선인들은 계획의 구체적 양상에 동의하지 않았을 뿐, 경성부의 현재 상태를 고려하면 경성부의 확장은 이미 민간에서도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터였다. 도시계획연구회가 경성부를 확장하고자하는 의도는 “순 당국의 계획이며 민간으로의 계획은 아니기” 때문에, 조선인들을 중심으로 하는 ‘대경성건설기성회(大京城建設期成會)’를 설립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기도 했다.<sup>13)</sup> 특히 교외탐방기사에서는 조선인들에게 있어서 교외지의 발전을 가로막는 장애요소를 소개하거나, 또는 이전의 성외지역에 번영에 비해 현저하게 발전이 멈춰진 지역에 대한 아쉬움을 드러낸다. 즉, 기사에서는 경성도시계획연구회에서 제시하는 경성의 확장안 및 발전정책에 동조하는 듯하면서도 조선인의 입장에서 발전될 여지가 있는, 발전되어야 하는 지역을 조명하고 있었다.



<그림 1> 「매일신보」 및 「조선일보」에 연재된 교외탐방기사

### 3. ‘교외’의 범위와 공간구분

#### 3.1 교외의 정의 및 범위

그렇다면 세간의 관심을 받은 ‘교외’는 무엇을 의미하고 있었을까? 본래 서구로부터 유입된 단어로서 ‘교외(Suburb)’란 중심도시의 일부 기능을 분담하는 기능적 요소를 강조하는 개념이고, ‘도시주변지역’은 중심도시와 연결된 모든 지역을 일컫는 위치적인 개념<sup>14)</sup>이라는 점에서 구분된다. 본고에서 다루고 있는 시기의 ‘교외’ 개념은 부외, 시외,

성외 등 경성의 도심부와 인접한 공간을 지칭하는 개념으로 쓰이고 있다. 때문에 앞서 제시한 개념에 따라 이러한 지역은 ‘도시주변지역’으로 이해될 수 있으나, 실질적으로 도심으로부터의 주거기능, 고용기능, 교육기능 등을 어느 정도 분담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교외’이기도 했다.

그렇다면 정확히 경성부의 ‘교외지역’이란 어느 지역을 지칭하는 것일까? 기사에서 언급하는 교외의 범위는 경성부의 인접지역 가운데 ‘편입이 사실상 확정된 구역’으로, 남산을 중심으로 약 6km이내에 위치해 있었다. (<표 2> 참조) 같은 시기 동아일보의 ‘교외’ 지역을 다루는 기사를 분석한 김하나(2008)의 연구에 따르면, 일제강점기 경성의 교외로 언급된 지역은 대부분 광화문을 기준으로 15km~40km에 이르는 범위에도 있지만 대부분 10km 이내, 그 가운데서도 2~6km의 범위의 가장 많은 지역들이 위치하고 있다. (<그림 2>)

<표 2> 1936년 경성부 편입구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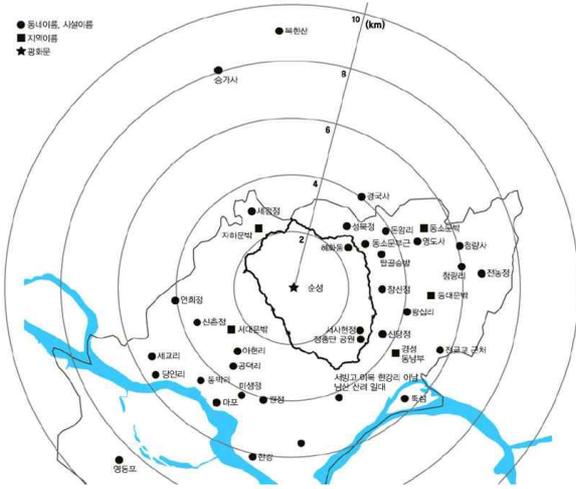
군	면·읍	리
고양군	용강면	현석리, 신수철리, 구수철리, 창천리, 하중리, 신정리, 상수일리, 하수일리, 당인리, 여울리, 아현리, 궁덕리, 신궁덕리, 열리, 동막상리, 동막하리, 토정리, 여울리
	연희면	아현북리, 대현리, 노고산리, 창천리, 신촌리, 봉원리, 정회리, 서세교리, 동세교리, 합정리, 망원리, 남가좌리 일부
	은평면	홍제내리, 홍제외리 일부, 부암리, 홍지리, 신영리,
	송인면	성북리, 돈암리, 신설리, 종암리, 응두리, 제기리, 회기리, 청량리, 휘경리, 이문리, 답십리, 전농리
	한지면	이태원리, 둔지리, 서방고리, 동방고리, 주성리, 보광리, 한강리, 두모리, 수철리, 신촌리, 행당리, 상왕십리, 하왕십리, 신당리, 마장리, 사근리
시흥군	북면	신길리, 노량진리, 본동리, 흑석리, 동작리, 도림리 일부
	영등포읍	영등포리, 당산리, 양평리
	동면	상도리
김포군	양동면	양화리, 염창리 일부, 목동리 일부

이처럼 교외지역이 언급되고 조명 받는 것은, 식민권력의 도시계획과 관련된 것이었으나, 한편으로 이미 과거 한양의 성외지역의 발전양상 속에서 발전해온 공간에 대한 관심이기도 했다. 경성부로부터 약 6km 이내의 범위는 조선시대 한성부의 성외(城外)지역인 성저십리(城底十里)의 범위와 대체로 일치한다. 성저십리의 범위는 동쪽으로는 양주(楊州) 송계원(松溪院) 및 대현(大峴), 서쪽으로 양화도(楊花渡) 및 고양(高陽) 덕수원(德水院), 남쪽으로는 한강 및 노량진(露津)<sup>15)</sup> 북으로는 삼각산(三角山)까지로, 대체로 직선거리 기준 10리 정도를 경계로 하는 공간이었다.<sup>16)</sup>

성저십리는 조선시대 교외(郊外)지역의 기준으로서<sup>17)</sup> 방

12) 空中樓閣의都市計畫(二) 定見업는道路改修 市民生活을攪亂, 조선일보, 1925.06.05  
 13) 대경성건설기성회의 창설운동은 1920년대 문화운동가인 박달성(朴達成)에 의해 주창되었다. 기성회의 조직유무나 활동양상은 불분명하다. 다만 그는 도시계획에 있어 조선인만의 대책을 내세우거나, 도시계획연구회에 협조적 출력이라도 하기 위해 조직운동에 힘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朴達成, 京城兄弟에게 嘆願합니다!!!, -大京城을 建設기 爲하야-, 개벽 통권 2호, 1922.03.01., p.43~52  
 14) 권웅우. 교외지역의 개념과 유형에 관한 고찰, 국토지리학회지 10권, 1985, p.39

15) 세종실록, 148권, 지리지 경도 한성부  
 16) 유승희, 조선시대 한성부 성저십리의 지역적 특성과 城底民서의 실제, (서울역사편찬원, 서울역사 중점연구, 5), 서울역사편찬원, 2019. p.97  
 17) 조선시대 교외공간은 특정한 공간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거리개념에 의거하여 성 밖의 공간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그 범위에 대해서는 성저십리를 포함하는 성외공간을 모두 교외라고 지칭하거나, 혹은 성저십리 바깥부터의 공간을 교외지역이라 인식했다는 견해가 있다. 후



<그림 2> 경성 반경 10km 이내 교외지 및 시설명  
(김하나·전봉희, 1920~1930년대 동아일보 기사에 나타난 경성의 교외, 한국역사학회 춘계학술발표대회논문집, 2009, p.49)

위에 따라 서교(西郊), 동교(東郊), 북교(北郊) 등으로 불리었다. 조선사회에서 ‘교(郊)’개념은 사교(四郊)와 교외로서 더 빈번하게 사용되었다.<sup>18)</sup> 성외지역을 교로 인식하는 것은 이미 고려시대부터 이어진 것으로,<sup>19)</sup> 중국의 ‘교’ 개념에 입각하고 있다. 중국은 황제를 중심으로 하는 공간관으로부터 도성을 중심으로 근접지역간의 위계를 설정했다. 『주례(周禮)』에서 정의하는 ‘교(郊)’ 지역은 도성의 영향이 강한 지역으로서, 도성으로부터 50리 안에 들어가는 지역을 근교(近郊) 또는 교내(郊內)라고 하고 또 50리 밖으로부터 100리 안의 지역은 원교(遠郊)라고 하였다.<sup>20)</sup>

이러한 개념에 입각하여 조선은 한성을 중심으로 ‘교’ 지역을 설정하였고, 성저십리는 왕성(王城)을 보호하는 권역(21)으로 자리 잡았다. 이처럼 조선시대에도 이미 중심도시의 기능을 분담하고 있었다. 조선 전기에는 왕실의 의례 기능, 및 외교사신을 맞이하고 접대하는 기능이 주를 이루었다면 조선 후기에 이르면 점차 발전되어가는 도시의 상업 및 주거 기능 등을 분담하게 되었다. 조선 전기에는 행정 구역을 정립해가는 과정에서 왕실의 중요한 시설을 입지시켜 별채와 경작 등의 개발을 제한했다. 그러나 조선 중기 이후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의 피해가 극복되고, 대동법으로 인한 부세의 균일화, 경강의 발전에 따른 상업의 발달 등 다양한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위성도시들이 형성

될 정도로 그 성격이 변화된다.<sup>22)</sup>

20세기 초에 이르면 성외지역은 조선 후기 변화에 힘입어 대부분 상업과 농업을 직업으로 하는 계층이 거주하면서 인구가 집중되었다. 상업을 통해 부를 축적한 인구들이 늘어나면서 계층분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었던 것이다. 한성부의 교외가 독자적인 지역성을 나타내고, 점차 도시화 단계로 발전하게 된다.<sup>23)</sup> 일제강점기 초반에도 이 지역을 포함하는 한성부의 행정구역이 유지되었으나 1914년 경성부는 용산 일대를 제외하고 그 범위가 대거 축소된다. 이로 인해 교외지역의 발전양상은 다소 정체되었으나, 경성부 도심의 지속적인 인구 및 주택문제, 기타 도시문제 등으로 공간 확장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었다.

염복규(2013)는 일제강점기 경성부의 확장으로 인해 편입된 지역을 현재 서울의 확장과 개발의 과정 속에서 등장한 ‘근대적 교외(the suburbs)’<sup>24)</sup> 로서 지목하고 있다. 근대화의 상징으로서 도시의 발전을 통해 교외의 존재와 기능을 확인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서울은 조선이 개국한 이래 한양이라는 전통적 수도공간을 둘러싼 성저십리라는 교외공간이 존재해왔다. 즉, 교외지역이 1920년대부터 ‘근대적 개발’이라는 이유로 부각된 것은 사실이나, 과거와의 연장선 상에서 볼 때, 이러한 관심은 이미 발전하고 있었던 지역에 대한 관심의 부활이기도 했다.

### 3.2. 교외의 공간분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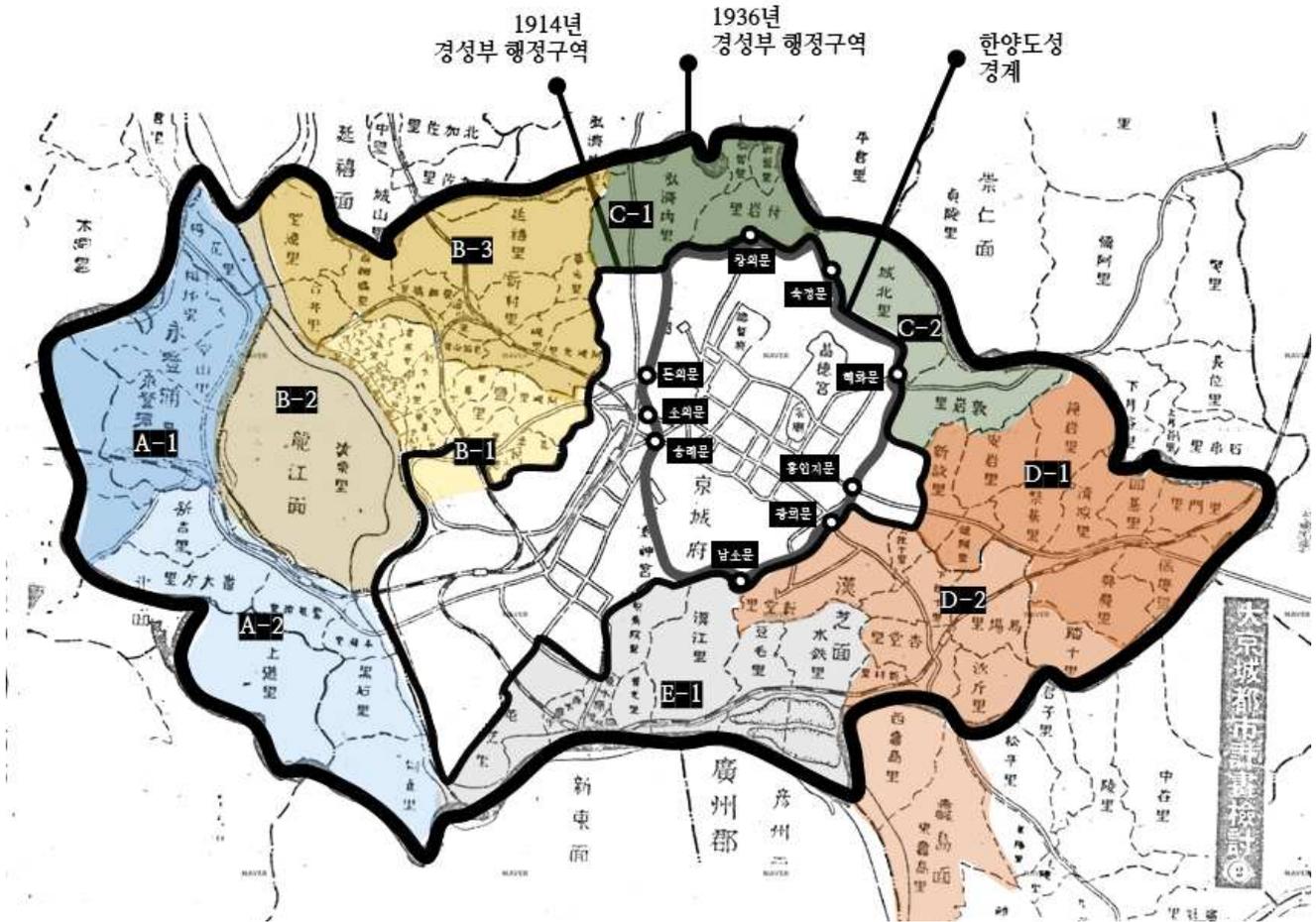
당시 교외지는 “대경성의 면목은 해마다 변하여 ... 깊이 잠들어 있는 옛 왕도(王都) 서울의 꿈이 깨어질 것도 옛날이다. 그것은 정치적 변천과 병행하여 성벽이 헐리고 성문이 터져 나가며 근대적 대도시로 팽창하여 가는 현실”<sup>25)</sup> 을 반영하는 공간이었다. 교외지의 공간분류 방식에서도 이러한 인식을 찾아볼 수 있는데, 이미 경성부의 인구가 밀려 나가 살고 있기 때문에 경성부의 행정구역은 앞으로 “서(西)로는 麻浦(마포), 北(북)으로는 東小門(동소문) 外(외)와 紫霞(자하)골, 東(동)으로는 東大門(동대문) 外(외)와 光熙門(광희문) 外(외) 南(남)으로는 西水庫(서빙고) 漢江里(한강리)”<sup>26)</sup> 를 눈여겨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인용문에서 드러나듯, 교외공간의 분류 방식은 주로 한양도성의 사대문과 사소문을 중심으로 구분되고 있다. 근대적인 차원의 지역설명에도 불구하고 공간을 분류하는 방식에 있어서는 여전히 전통적인 공간인식의 중심이 되는 사대문과 사소문을 그 지표로 삼고 있었던 것이다. 기사

자의 경우 다음의 논문을 참조 (오영인, 조선시대 분묘 內 매납 자기에 대한 一考 -한양 공동묘역 출토 한 벌의 부장품을 중심으로-, 중앙고고연구 통권 12호, 2013, p. 99~104)

18) 박범, 조선시대 경기 재편과 위상의 변화(서울역사편찬원, 서울역사 중점연구, 6), 서울역사편찬원, 2019, p.36  
19) 신안식, 高麗 開京의 ‘都內와 郊’, 역사민속학 제18호, 2004, p.79  
20) 이 거리 개념은 왕성(王城) 주위의 사방 1000리를 전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 이것이 100리인 경우에는 교 역시 1/10 거리로 상정할 수 있다. 정학수, 高麗前期 京畿地 研究, 건국대학교 사학과 박사학위논문, 2008  
21) 최영준, 朝鮮時代 漢陽의 郊地域 研究, 문화역사지리 제1호, 1989, p.6

22) 서울특별시, 서울都市計劃沿革, 서울특별시, 2001, p.50~51  
23) 김현진, 1900년대 近代 都市의 주변과 거주민의 삶- 光武 7년(1903) 漢城府 城外 戶籍을 중심으로, 한국학연구 44집, 2017, p.597  
24) 염복규, 식민지 도시계획과 ‘교외’의 형성- 1930-40년대 京城 敦岩地區 개발의 사례 -, 역사문화연구 46집, 2013, p.36  
25) 城裡安眠王都도 時運따라 城外展足, 매일신보, 1933.09.29  
26) 古塚우에 新市街 시테우에 자라날 市民들 水口門外의 別天地, 1929.03.28.



<그림 3> 경성부 교외의 공간구분 (배경지도: 조선일보, 1936.01.16.)

에서 언급된 내용을 중심으로 공간분류를 하면 <그림 4> 및 <표 3>과 같다.

<표 3> 교외의 공간분류

방위	상세구분	해당 동리 일대
한강 이남 (A)	공업지대 (A-1)	영등포 일대
	시흥군 북면 (A-2)	노량진, 본동리 일대
서부 (B)	전차연선 (B-1)	아현, 공덕리, 신공덕리, 염리 등 마포일대 한강변 일대(토정리, 현석리, 수철리)
	기타 (B-2)	여울리
	연희면 방면 (B-3)	아현북리, 대현리, 신촌 일대
북부 (C)	자하문 밖 (C-1)	부암리, 신영리, 평창리, 구기리 홍제리
	혜화문 밖 (C-2)	성북동 돈암리
동부 (D)	동대문 밖 (D-1)	신설리, 안암리, 제기리, 율동리, 청량리
	광희문 밖 (D-2)	신당리, 왕십리, 행당리, 마장리, 사근리
남부 (E)	남소문 밖 (E-1)	한강리, 보광리, 동빙고리, 서빙고리 두모리

해당 기사에서 다루는 경성부의 인접구역의 공간 구분은 방위에 따라 북부, 서부, 동부, 남부, 한강 이남의 지역으로 나눌 수 있다. 이는 조선시대부터 행해져 온 한성부의 5부 8면제에 따라 나누어진 방위에 의거하고 있다. 그러나 경성

부 확장 이전의 교외지역을 동·서·남·북 네 방위에 따라 구분하는 것은 사실상 모호하다.

실제 기사에서는 방위로 구분하는 것보다 자세하게 공간을 분류하고 있었는데, 이는 당시의 생활감각을 어느 정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도성과 바로 인접한 구역의 경우 사대문과 사소문을 통한 전통적인 지역구분을 취하고 있으며, 덧붙여 기존의 5부 8면제에 따른 면단위의 구분—용강면, 은평면, 한지면, 연희면, 송인면, 북면—이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양상은 경성부의 도시계획에서 제시하는 ‘용도지역제’에 따른 구분과도 유사하며, 『경성시가지계획결정이유서(京城市街地計劃決定理由書)』(1936)에서 드러나는 지역개발구상과도 비슷한 측면이 있다. (<표 4> 참조) 이 문서에서는 경성부로 새롭게 편입되는 구역을 어떻게 분류하여 개발할 것인지에 대한 구상안을 주로 논의했으며, 도시공간을 편의에 따라 한강이남, 동부, 서부로 간략하게 분류<sup>27)</sup>하였으나 상세한 결정구역은 살펴본 구역의 범주와 비슷하다.

27) 염복규, 서울의 기원 경성의 탄생, 이데아, 2016, 134~136

<표 4> 『경성시가지계획결정이유서』에 따른 공간 구분

방위구분	해당지역	용도지역
한강이남	영등포일대	공업지역
	노량진일대	배후 주택지
동부	청량리일대	주거지역 및 일부 주요공업지역
	왕십리일대	주거지역 및 일부 주요공업지역
	한강리일대	고급 주거지역
서부	머포-용강 일대	공업지역, 중소공업지역
	연희-신촌 일대	주거지역, 공업지역
	은평 방면	풍치지구

때문에 기사에서 제시하는 공간분류는 도시계획으로부터 영향 받았다고 해석할 수도 있으나, 기사에서 보다 구체적인 지표로 제시되는 것은 사대문을 경계로 한 위치였다. 물론 성벽과 인접한 지역이 아닌 경우에는 이후 도입된 전차 및 기차 등의 선로, 지역의 도시화 양태에 따라 지역을 구분하고 있다. 특히 서부지역(B)의 경우 이미 도성과 인접한 구역이 경성부에 편입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후 발전한 전차의 선로와 기존의 부면체제에 입각한 공간구분을 받아들이고 있고(<그림 4>) 동부(D)의 경우(<그림 5>)<sup>28)</sup> 도성과 인접한 구역의 구분이 사대문 및 사소문의 위치뿐만 아니라 근대적 발전이 도입된 이후의 도로의 변화, 전차 선로 등의 위치에도 영향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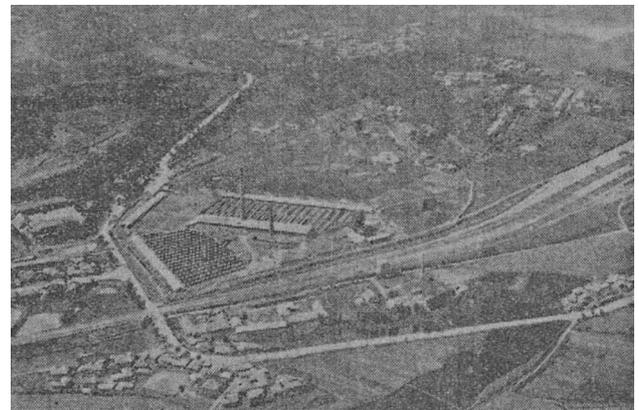
<그림 4> 서부지역의 전차선로와 공간구분



<그림 5> 동부지역의 전차선로와 공간구분

지 못한 곳으로, 일제강점기 이후 근대적 시설의 도입, 특히 기차와 전차 등의 시설을 통해 관심 받게 된 지역이라 할 수 있다.

A-1 지역은 경기도 영등포읍 일대로, 영등포리, 당산리, 양평리가 포함되는 지역이다. 이 지역은 조선시대만 하더라도 수해가 잦은 탓에 사람이 거의 살지 않았다. 그러나 20세기 이후 경인철도(京仁鐵道) 및 경부선(京釜線)의 승환지점이자 김포(金浦)로 연결되는 유일한 관문 역할을 하게 되면서, 교통의 요충지로서 자리잡는다. 뿐만 아니라 방적(紡績), 피혁(皮革), 철공(鐵工), 요업(窯業) 등을 다루는 공장이 입지하기 시작하면서, 이 지역은 행정상 혜택을 받을 정도로 발전하기 시작했다.<sup>30)</sup> 경성부와 인접한 교외 가운데 공업 기능을 분담하는 지역으로서 가장 큰 위상을 보이는 이곳은, 도시계획에서도 소비도시(消費都市)를 생산도시(生産都市)로 건설하고자 하는 목적에 가장 부합하는 지역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수도 및 제방 시설 등 도시기반시설이 부족한 실정이었다.



<그림 6> 영등포의 공장후보지 (매일신보, 1934.04.07.)

A-2 지역은 복흥촌(復興村)과 본동리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는 노량진 일대. 복흥촌은 을축년 대홍수로 인해 침수된 이촌동 주민들이 경성부청으로부터 본동리의 땅 15평 정도를 불하받아 1930년대 노량진 일대의 중심을 이루게 되었다. 이 지역은 경성부민의 유원지(遊園地)로서 조명받기도 하였으나 그 자체로는 여전히 근대적 시설이 부족한 까닭에 경인가도의 대개수와 인도교 확장을 통한 영등포와의 연락을 통해서만 발전을 꾀할 수 있다는 전망을 보이는 곳으로, 공업지역의 배후 주거지의 역할을 기대하고 있었다. 영등포와의 연결로 이미 일본인 자본가들에 의해 일부 지역이 주택지화 되어가는 양상을 보이고 있었다.

#### 4. 교외지역의 실태와 교외공간 인식<sup>29)</sup>

##### 4.1. 교외지역의 실태

###### (1) 한강이남의 공업지역(A)

한강 이남의 교외지역은 영등포를 중심으로 하는 공업지역(이하 A-1)과 노량진을 중심으로 하는 지역(이하 A-2)로 나뉜다. 한강이남의 지역은 조선시대에는 전혀 관심 받

28) <그림 4>와 <그림 5>의 배경지도 출처: 京城電氣株式會社, (1929), 『京城電氣株式會社二十年沿革史』, 京城電氣株式會社)

29) 본 장에서는 2장의 <표 1>에서 제시하고 있는 기사에서 언급된 내용을 중심으로 당대의 교외 공간을 구성하는 요소들을 살펴보았다. 각 지역에 따라 드러나는 공간인식과 그 실태는 해당 기사를 출처로 했고, 지면 상 따로 인용표시를 하지 않았으며, 그 외에 참조한 내용은 각주를 통해 인용문헌을 밝힌다.

30) 영등포지역의 변화에 관한 논문으로는 다음을 참조: 김하나, 근대 서울공업지역 영등포의 도시 성격 변화와 공간 구성 특징. 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2013



<그림 7> 노량진의 북촌촌 일대(조선일보, 1933.09.30.)

## (2) 서부지역 (B)

서부 시외의 경계는 죽림 3정목을 지나 아현리 전차정류장을 기점으로 시작된다. 본디 17세기 후반부터 상공업의 발전 및 경강(京江)지역의 발달로 많은 인구가 밀집한 곳이었다.<sup>31)</sup> 오히려 동문(東門) 밖 지역에 비해 빠른 도시화 양상을 보이면서 도성 안의 백성들과 같은 대우를 받았다. 때문에 서대문 바깥의 인접 구역은 이미 1914년 경성부의 행정구역이 축소되었을 때에도 편입되어 있는 상태였다. 그러나 여타 다른 지역에 비해 그 발전의 양상이 ‘억울할 정도’로 진척이 느리게 진행되고 있다 평가받는 곳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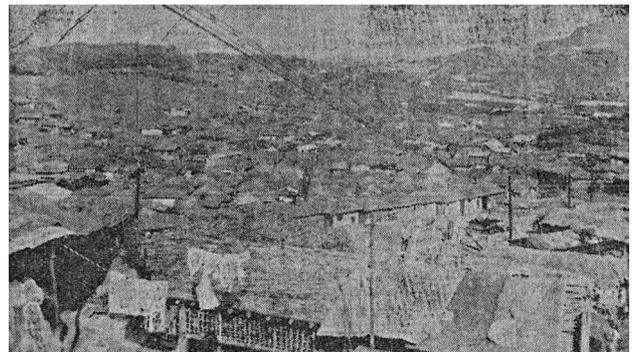
이 지역은 전차선로를 기점으로 마포로 향하는 방향(B-2)과 신촌방향으로 나있는 대로를 따라 이어지는 연희면 일대의 지역(B-1)으로 나뉠 수 있다. 다만 현재의 여의도지역(B-3)와 서부의 끝 지점인 수철리, 연희리 등은 여전히 도심부와 먼 까닭에 여전히 농촌적인 풍경을 가지고 있어 기사에서 언급되는 분량이 작다.

B-1구역은 서북방으로 뻗은 연희면 일대로, 아현북리, 대현리, 신촌리 등이 중심이 된다. 이 지역은 다른 교외지역에 비해 현저히 그 발전이 덜한 상태로, 땅값이 싸서 점차 시내의 세민들이 셋방을 구하러 나오기도 했다. 그러나 이는 시내와 연락 가능한 기차선로가 이어지는 아현북리에서 신촌일대의 일부지역의 사정이었고, 그 외 부락은 거주민의 대부분이 농민들이었다. 때문에 이 지역은 중간계급의 주택지로 불리기도 했다.

B-2 구역은 아현에서 마포에 이르는 전차 연선 일대 지역으로, 아현, 동막, 염리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 지역의 흥미로운 점은 이미 1914년 경성부의 행정구역으로 편입된 마포지역이 개발되어야 할 ‘교외’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이다. 본래 서울의 유일한 항구로서 마포는 물자의 유입이 원활하기 때문에 경강일대의 발전의 중심지가 되기도 하였으나, 한일병합 이후 육로의 발달이 가속화되면서 그 발전의 속도는 더욱 늦어지고 있었다. 조선후기 나타났던 교외지역

번영에도 불구하고 정체상태가 행정구역 제한으로 침체되었다가, 도시발전에 의해 다시금 등장함으로써 ‘근대적 개발’이라는 표면적 양상과 더불어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발전에 대한 아쉬움은 전통적인 수도에서 가지고 있던 분담기능이 탈각됨과 동시에 과거 조선후기 발전하기 시작했던 성외지역의 특수성을 절단된 데 기인하고 있었다. 당인리의 경우 발전소가 위치해있어 공업지대로 보이기에는 하였으나, 발전소를 제외하면 일반 농촌적인 풍경을 여전히 가지고 있었고, 발전의 가장 중요한 요소로서 꼽히는 경성으로의 연결을 위한 교통편 도 불편한 상황이었다.

특히 아현은 노동자 주택지화 되어서 그 발전이 미미한 상태였다. 더욱이 아현의 분노유송탱크와 토막민 부락, 공덕에 들어선 경성형무소 등이 자리를 잡아 도시로서의 미관상, 아동의 교육상, 주민의 위생상 큰 영향을 미치고 있어 발전 저해요소로 지목되기도 했다. 더 나아가 여전히 황무지나 다름없었던 한강연안의 토정리, 신구수철리, 현석리, 신정리, 창전리 일대는 지세 상 홍수로인 한 범람이 잦아 그 피해가 막심했고 이 일대의 방수제(防水堤)의 필요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으나 경성부의 도시계획안에서는 이에 대한 아무런 대책이 없었다. 이처럼 동부나 남부 교외에 비해 경성부의 관심이 덜 해 대자본이 아니면 발전될 여지가 거의 없는 지역이나 다름없었다.



<그림 8> 쌍룡산에서 내려다본 아현리와 아현북리 일대 (매일신보, 1934.04.08.)

B-3지역 여율리(지금의 여의도)의 경우에는 한강 이남에 위치하고 있지만, 1933년만 하더라도 영등포만큼의 공업지대로 성장하지 못했고 여전히 배짓기 등으로 생활근거를 마련하고 있다는 점에서 오히려 발전이 더딘 서남부지역과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었다. 이후 도시계획을 통해 한강 이남의 지역과 묶여 인식되지만, 적어도 경성부 확장 이전에는 전혀 다른 성격의 지역으로 남아 있었다.

## (3) 북부지역 (C)

북부지역의 서부에 위치한 C-1지역은 자하문 바깥의 부암리와 홍제리로 이루어져있다. 부암리 일대는 신영리, 평창리 등으로 통해 있는데, 특히 부암리 주민의 살림은 도시적인 모습은 거의 없고 봄부터 가을까지 과일을 키우거나

31) 조선 후기 도성 밖 반석방 및 반송방 지역을 포함하는 이른 바 삼문(三門)밖 지역의 발전양상은 다음의 연구를 참조; 고동환, 조선후기 서울 삼문(三門) 밖 지역의 특성. 서울학연구 통권 59호, 2015

꽃을 재배하여 경성부에 파는 것으로 생업을 삼았다. 이 지역은 농토가 없고 교통도 불편하기 때문에 주택지로나 도시로나 더 발전될 여지가 없다고 판단되었으나, 세검정(洗劍亭)에 수영장이 생긴 이후 여름철은 관광지로서 한몫할 것이라는 기대 외에는 여전히 산골의 풍치를 가진 교외로서 인식되었다.

홍제리는 무학재 고개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마을로서 본래 조선시대 서북의 현관이었으나 오히려 경성부에 편입되어 형무소 뒤에 위치한 행촌동과는 전혀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었다. 이 지역은 방위상, 전통적인 지리감각 상 서부에 더 가깝지만, 서북지역의 연회리의 발전과는 다소 거리감이 있었다. 산턱에 화장터(火葬場)가 위치하고, 상당한 경사를 가진 무학재 길목 때문에 시내와의 연락이 힘든 상황이었다. 다만, 직공, 노동자들, 세민들이 경성부의 비싼 땅값에 못이겨 이 지역에 까지 거주하는 인구가 늘어가고 있었다.

C-2 지역은 동소문 바깥의 성북동(城北洞)을 중심으로 하는 지역이다. 이 지역은 자연환경이 깨끗하고 맑아 답답한 경성 시내에 비해 ‘살기 좋은’仙境(仙境)으로 꼽혔었다. 서북방면으로는 산이, 동측으로는 청량리 방향으로 뚫리어 있어 옛날부터 양반가들의 별장지로서도 유명했다. 이미 학교촌으로 발전하여 조선식 와가(瓦家)와 양관(洋館)이 그 풍경의 주를 이룰 정도로 부촌을 형성했다.



<그림 9> 성북동 일대 (조선일보, 1933.10.01.)

이러한 양상은 돈암리에도 영향을 미쳤고, 교외발전지 중에서도 현저한 인구증가율을 보이고 있었다. 하지만 성북동처럼 엘리트 계급의 부촌을 형성하지 못하고 여러 계급의 사람들이 잡거하는 공간이었으며, 1936년 이후 토지구획정리를 통해 조선인과 일본인이 융화하는 모범적인 교외주택지로 개발되기도 했다.<sup>32)</sup>

32) 돈암지역의 토지구획정리 양상은 다음의 논문을 참조: 엄복규, 식민지 도시계획과 ‘교외’의 형성, 역사문화연구 제46집, 2013, p.35~64

#### (4) 동부지역 (D)

동부지역은 경성부의 인접구역 가운데 가장 많은 발전을 한 지역으로서 경성도시계획위원회가 가장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인 곳이었다. 동부지역 개발의 제1선으로 꼽히는 것은 앞에서 언급한 북부의 동소문 바깥의 성북, 돈암 방향이었다면 제2선은 대경성의 뒷문인 동대문 바깥으로 경함선(京咸線)이 지나는 청량리까지, 제3선은 광희문 바깥의 왕십리에서 한강의 저편<sup>33)</sup>에 이르는 구역이었다.

D-1지역은 동대문에서 제일 먼저 경성을 따라 개척된 곳으로, 인구가 가장 많은 신설리를 중심으로 하는 지역이다. 이 지역을 관통하는 동대문에서 청량리 정거장으로 이르는 곳에는 도폭 18m의 최신식 도로가 공사되어 경성부의 중요한 길목으로 자리잡은 곳이기도 했다. 실제로 1934년의 기사에서는 이 도로를 중심으로 경성부내에 부러울 것이 없을 정도로 시가가 되어있다고 표현하기도 했다. 이곳에는 종연방적(鍾淵紡績), 신정연와(新井煉瓦), 서울고무 등을 비롯한 10여개소의 대소공장이 위치해 있어 이미 전농리까지는 농촌적인 풍경이 거의 사라져 주민의 80% 이상이 이미 시내에 직업을 가진 자들로 구성되어있었다. 기사는 이러한 점을 미루어 이러한 직업구성은 이미 농촌보다는 도시의 연장선 상에서 있다고 밝히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구의 구성은 집세가 싼 곳을 찾아다니는 월급쟁이들과 더불어 토막민과 같은 세민 계급이 주를 이루었다. 한편으로 탑골승방(搭骨僧房), 영도사(永導寺), 청량사(淸涼寺) 등 유원지의 역할을 하는 교외의 역할을 하는 곳이기도 했다. 그러나 전차의 구역제도(區域制度) 때문에 경성부로의 교통비가 비싸 계속해서 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었다.

D-2지역은 광희문 바깥으로, 빈민지대가 대부분이었지만 화려한 문화주택, 근대식도로가 등장하면서 지가상승이 이어졌다. 특히 그 가운데 특히 가장 많은 발전을 보인 것이 신당리다. 신당리는 문화주택지가 준비하여 반면에 빈민촌이 함께 존재하는 이질적인 풍경을 만들어 내고 있었다. 특히 이 지역에는 묘지(墓地)와 화장터(火葬場)가 있어 신당리의 일부 문화촌 주민을 제외하면 주민은 전부가 극빈자(極貧者)로, 이른바 경성의 빈민굴이었다. 왕십리로 이어지는 풍경에도 이러한 토막이 산재해 있었다. 특히 왕십리와 뚝섬일 대는 채소밭에서 소작농으로서 생계를 세우는 사람들이 대부분 거주했는데, 이 지역에는 동양척식회사 땅이 절반을 차지해 소작인들은 대부분 동척을 통해 생계를 이어가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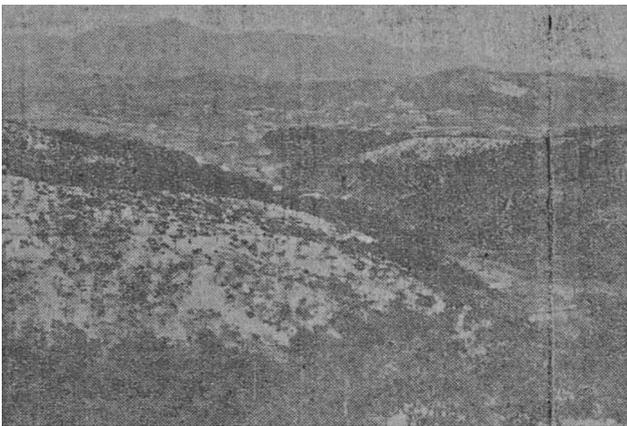
이처럼 신당리를 제외하면 거의 발전되지 못한 광희문 바깥은 조선시대 수도를 정하면서 ‘무학의 뜻이 실현을 보지 못하게 된 공간’이자 ‘왕도를 서울에 빼앗긴’ 지역이었다. 기사에 따르면 사대문 중에서도 가장 불행한 운명을 가

33) 郊外로 進出하는 大京城의 發展相, 조선중앙일보, 1933.11.29

지고 태어난 문으로, 서민의 시체가 나갈 수 있는 유일한 지역으로서 시구(屍口)문이라는 별명을 가지기도 했다. 그러나 병합 이후에도 여전히 발전의 양상이 나타나지 않아 아쉬워하면서도, 언젠가는 이러한 역사적 사실도 잊은 채 묘지와 화장터 위로 새로운 건물들이 나타나게 될 것을 기대하고 있었다.



<그림 10> 신당리 빈민촌과 문화촌 (조선일보, 1933.10.05.)



<그림 11> 광희문 밖 일부 (古塚(고총)의 모습 (매일신보, 1934.04.14.)

#### (5) 남부지역 (E)

E-1지역은 장충단 공원을 지나 남소문 바깥으로 이어진 한강변을 따라 한강리, 보광리, 서빙고리, 동빙고리 등이 위치해 있는데 이곳은 ‘교외의 유원지’로서 조명 받고 있었다. 서울근교의 산책지로는 경치 좋기로 손꼽는 곳으로, 조선시대에는 배편(船運)을 이용해 한강 상류지방과 장사를 하던 곳이었다. 그러나 배편 외에는 경성부와의 교통관계가 거의 없어 불편해 거의 발전이 없고 강변운수와 관련된 업을 하던 사람들이 육로교통의 발달에 밀리어 대부분 생업을 변경하고 있었으나 생업에는 크게 지장이 없었다고 한다. 이는 해당 지역에 찾아 들어온 자산가들이 한강리에 부촌을 이루게 되면서 그들이 경영하는 정미소에서 노동을 하는 까닭이었다. 이 곳에 부촌을 이룬 자산가들은 고양군의 60% 이상의 세금을 부담하고 있는 자들이었다. 특히 이

지역은 일본인 자산가들의 큰 관심을 받아 지속적으로 경성부 도시계획계에 남산주회도로(南山周回道路)를 부설할 계획을 요구하고 있었다.

다만 두모리의 경우에는 ‘특수지대’로서 작은 무역지를 이루고 있는데, 이 지역의 주민들은 행상(行商)을 상업으로 하되 들고 다니며 파는 물건은 보통 시장에 흔히 나오지 않는 물건들을 지방에서 사다가 시내에 들어와 파는 생활을 이어나가고 있었다.

#### 4.2. 교외의 이미지와 근대적 활용

경성부의 지세 상 북으로는 북한산, 중앙에 남산, 동으로 낙산 등이 위치해 있어 구릉의 기복이 심하고, 한강유역에는 범람의 우려가 있어 이용 가능한 땅이 얼마 없다는 이유로 기사에서는 모두 교외로의 발전이 자연스럽고 꼭 필요한 것이라 이야기하고 있다. 이러한 인식은 이미 도시계획안을 통해 제기된 발전 구상과도 같은 맥락에 있다. 특히, 경성부 도심은 이미 인구가 가득 차 숨이 막힐 지경에 이르렀는데, “그릇에 물이 가득차면 넘쳐 흐르는 것과 같이 인구는 교외로 교외로 넘쳐 나아가 경성의 영역도 날로 넓어져만 가”<sup>34)</sup>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경성부의 조밀한 인구밀도는 도시의 발전상에도 해를 줄 뿐만 아니라 보건 위생상으로도 해를 끼치기 때문에 교외의 녹수청산(綠水靑山)과 맑은 공기가 부민에게 영양소가 되어 생명선(生命線)이 될 것이라는 이미지를 내세우고 있었다. 사실상 이러한 이미지는 조선시대 성외지역의 개발제한에 따른 결과였고, 이로부터 교외(郊外)는 본래 건강한 몸과 마음을 위하여 산보(散步)하는 장소로 인식되었다. 교외가 산책, 혹은 산보의 행선지가 되었던 것은 이미 20세기 초부터 등장한 인식으로, 일반적으로는 도회지와는 다른 분위기를 풍기는, 목가적(牧歌的)인 풍경을 가진 곳을 지칭한 것과 연결되는 지점이다.



<그림 12> 교외의 풍경  
(좌)조선일보, 1932.05.13., (우) 조선일보, 1926.08.20.)

교외 산보는 휴일이면 온 집안이, 혹은 젊은 남녀들이 놀러 나가는 방식, 즉 하나의 피크닉으로서 소개되었는데<sup>35)</sup> 이러한 교외개념은 미국의 경우 도회생활에 피로한 도

34) 좁은 地域, 느는 人口 飽和狀態의 長安, 그릇을 넘쳐흐르는 물과 가티 郊外로 郊外로 擴張, 매일신보, 1934.03.24

회인이 교외생활을 동경<sup>36)</sup>하고 있다는 사실로서 소개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산보를 하는 것은 그러나 된장찌개도 먹기 어려운 이들에게는 그저 구경거리였다.<sup>37)</sup> 산보를 간담시고 모던보이, 모던걸로 불렸던 당대의 남성들과 여성들은 유행하는 산보복을 걸치고 들로, 바다로, 교외로 나가고 있었는데, 산보를 위한 의복을 구매하거나 실제로 피크닉을 가기 위해선 상당한 돈이 드는 일이었다. 가령 1920년 광고에서 등장한 ‘교외 산책용 장신구’로서 금시계, 금안경, 금 및 보석 가락지<sup>38)</sup> 같은 사치품들이 소개되었다.

이러한 이미지를 이용하고 지목하면서 교외에 산재한 공한지를 개발하려는 근대적 시선또한 존재했는데, 경성부의 도시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는 교외의 쾌적한 환경은 주택지로서 가장 적합한 곳으로 지목되었다. 때문에 도시계획에 있어서 대부분이 주택후보지로 선정되었고, 사실상 유원지의 시설조차 들어설 곳이 없는 상태였다.<sup>39)</sup> 민간에서 주택지로서 교외를 개발하고자 하는 것은 경성부의 도시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이라기보다 부유한 계층을 위하거나 대부분 투기목적만을 위한 것이었다.

하지만 교외로 나아가는 것은 모든 계층을 막론하고 이루어졌다. “공기 좋고 땅값 싼 곳으로 앞을 다투어 몰려 나가는” 현상은 경성의 교외화 현상을 대변하는 대목이었으며, “고양밥 먹고 양주 구실한다”는 속담처럼, 대부분 집을 시외에 두고 사무는 경성 시내에서 보는 터였다. 실제로 1915년에서 1923년에 이르기까지 경성부의 인구증가율이 약 17%였던 것에 비해 인접면인 용강, 한지, 은평, 연희, 송인, 독도 6면의 인구증가율은 21%에 이르렀다.<sup>40)</sup> 이처럼 교외로 밀려나오는 부민들은 시가지의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벗어나, 소위 문화주택에 살고자하는 극소수를 제외하면 대부분은 여전히 경성부에서 출퇴근하지만 비싼 지가에 밀려나와 사는 이들, 혹은 그마저도 어려워 토막을 짓고 살아가는 이들이었다.<sup>41)</sup>

경성부는 토막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행정구역 바깥에 집단 수용지를 만들어 토막민을 경성부에서 몰아내고자 했다. 그러나 빈민의 특성상 토막민은 강제 이주를 당하더라도 원래 거주지로 모여 도시 안에서 직업을 찾을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교외로 언급된 대부분의 지역 중 개발의 손길이 미치지 않은 곳에 산재해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1936년에 이르면 부외수용지라는 의미도 없어진 채 행정구

역에 포함되어 개발지는 토막민들의 이주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에 이르게 된다.<sup>42)</sup>

경성부의 교외는 이러한 토막민 문제뿐만 아니라 병원, 수도, 가스 등의 시설이 부족하고 땅값은 싸지만 교통비가 상당히 드는 것도 문제였다.<sup>43)</sup> 때문에 이 시기 교외선을 둘러싼 2구역제 폐지 및 경성부 내외의 교통망 정비를 요구하는 것은 다반지사였다. 이러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자 전차, 버스를 일반 영리회사가 아닌 부(府)에서 경영할 것을 요구<sup>44)</sup> 하기도 했던 것이다.

교외의 ‘쾌적한’ 환경은 사실상 개발을 위해 필요한 이미지만을 채용한 것이었다. 민간에 의해 개발된 ‘교외주택지’는 주로 동부와 남부를 중심으로 일부 계층을 위한 주거지로 남았으며, 이 과정에서 걸림돌이 되었던 빈민굴과 부족한 근대적 시설은 지속적인 문제를 낳았다. 1936년 이후 시행된 도시계획정리사업을 통해 지목된 몇몇 교외지 역시 1930년대 후반 전시체제기를 거치며 대부분 미완의 상태로 남을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 속에서 ‘살기 좋은, 혹은 맑은 공기를 가진 교외’의 이미지는 퇴색되고 본래 재경성 일본인들이 의도했던 것처럼, 경성이 ‘공업도시’로 발전해나가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공장지대로서 교외’를 주목하게 되었다. 1930년대 후반에 이르면 인천과 경성 간 연결이 중요해지면서 경성부의 ‘발전되어야 할’ 교외의 범위는 차차 넓어지기 시작했다.

## 5. 결론

본고는 1920~30년대 경성의 교외가 갖는 의미를 당대의 탐방기사를 통해 규명해보고자 했다. 교외탐방기사는 경성부의 확장이라는 도시계획과 연관되어 식민당국의 정책과 의도를 효율적으로 전달·홍보하는 역할을 하기도 했으나, 한편으로는 직접 교외지에 찾아가 그 지역의 실상을 밝혀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또한 이 과정에서 드러나는 교외지의 공간구분과 실제 조선인들의 공간인식에 대해서도 조금이나마 살펴볼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었다.

기사로부터 도출된 교외공간은 단순히 경성부와 인접한 구역이라는 물리적 인식을 넘어, 조선시대의 전통적인 교외공간의 구성과 연결되어 분류되고 있었다. 기사에서 다루는 경성부의 인접구역의 공간 구분은 방위에 따라 북부, 서부, 동부, 남부, 한강 이남의 지역으로 크게 나눌 수 있지만 보다 구체적으로는 한양도성의 사대문 및 사소문이 기준의 경계로 활용되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경성부와외의 교통관계

35) 開苑後 처음보는 昌慶苑의 賞春客, 동아일보, 1927.04.26

36) 미국경제계 언제나 회복될가 (上), 동아일보, 1930.10.10

37) 流行의一九三一年型 (4), 조선일보, 1931.01.18

38) 광고, 동아일보, 1920.04.03

39) 大工場의 煙突은 林立 漢江下流엔 黑濤 부민산책지로 一 유-무二한 背山臨水의 驚梁津, 매일신보, 1934.04.07.

40) 郊外に伸びて行く大京城の發展振り, 市中より高い隣接面の人口増加率, 六七十萬になる卅年後, 경성일보, 1925.06.26

41) 明日의 京城 府外-巡記 (四) 절입해 劇場스고 미나리 논에는 잡화상 개덤 놀나올 戶口增加, 매일신보, 1929.03.20.

42) 엄복규, 서울의 기원 경성의 탄생, 이데아, 2016, 308~310

43) 유일한 휴양처 안락의 흠은 어떤곳에 세울가 (一), 동아일보, 1930.09.30.,

44) 府民의발 電車, 빠스 府經營을 斷行하라, 동아일보, 1940.03.16.

가 중요시되면서 전차연선이 각 지역의 발전의 중심지가 되고 있었으며, 도시계획안을 통해 발표한 용도구역제와 지역개발구상도 이러한 공간구분과 상호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교외지역 가운데 개발될 여지가 있는 곳은 성저십리 공간 가운데서도 조선후기 왕실의 권역과 연결되어 특히 개발이 제한되었던 곳이 대다수였다. 때문에 식민자들이 이를 활용하여 한적하고 공기 좋은 유원지로서, 혹은 주택지로서 개발하고자하면서 포화상태를 이룬 경성부의 도시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곳처럼 비춰졌다. 그러나 이미 경성부로부터 밀려나간 이들—주로 토막민과 세민계층이 존재하고 있다는 점에서 개발이 어려운 상태였으며, 실질적인 제도적 집행없이 빈부격차가 더욱 심해지고 아주 일부의 동리(洞里)만이 개발될 뿐이었다. 이러한 지역들은 경성부와의 동일한 대우, 즉 완전한 도시화를 요구받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일본인 자본가들의 관심을 받은 지역 외에는 여전히 농촌적 풍경을 가진 채 그 주거민의 구성만이 변화되었다.

뿐만 아니라 조선후기 점차 발전되어갔던 성저십리의 일부 지역들은 일제병합 이후 그 발전양상이 정체되면서 오히려 경성부 도심의 주거기능만을 전담하는 침상도시의 성격을 띠는 곳이 대부분이었다. 때문에 기사에서도 교외지와 도심부 간, 혹은 교외지 내 발전 불균형에 대한 아쉬움을 표출하고 있었다. 특히 경강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지역의 경우, 육로교통의 발달과 더불어 전통적인 수도에서 가지고 있던 기능이 탈각되면서 발전되지 못해 ‘억울한’ 지역으로 남게 되었다.

대부분 경성에서 통근하는 근로자이거나, 경성부의 지가를 감당하지 못한 토막민들이 거주했던 교외지역은 결국 경성부에서 해결하지 못한 주택문제, 빈곤문제, 공업문제, 기타 오물의 처리 등의 부정적 기능만을 분담하는 공간으로서 존재하게 된다. 결과적으로 교외지는 근대적 개발의 가능성이라는 허상만 남긴 채 도시로 편입되고 개발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기사 곳곳에서 드러나는 일부 교외지의 발전 정체에 대한 아쉬움은 과거 조선후기 발전하기 시작했던 성외지역의 특수성이 절단된 데 기인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아쉬움은 근대적 발전이라는 표면적인 이유 아래서만 표출될 수 있었다.

## 참고문헌

1. 손경목 (1990). 『일제강점기도시계획연구』. 서울:일지사.
2. 염복규 (2016). 『서울의 기원 경성의 탄생』. 서울:이태아.
3. 이경아 (2019). 『경성의 주택지』. 서울:집.
4. 고동환 (1993). 18·19세기 서울 京江地域의 商業發達. 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서울
5. 김은희 (2014). 1920-40년 일제강점기 조선인 민간신문의 사진을 통한 사회적 하층민 재현 연구. 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서울

6. 김하나 (2013). 근대 서울공업지역 영등포의 도시 성격 변화와 공간 구성 특징. 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서울
7. 양옥희 (1991). 서울의 인구 및 거주지 변화:1394-1945. 박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서울
8. 이신우 (2006). 18세기 서울의 주거문제와 도시확장책.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서울
9. 고동환 (2013). 조선후기 서울 도시공간의 변동- 상업발달과 관련하여. 서울학연구. 52권.
10. 김영근 (2003). 일제하 경성 지역의 사회·공간구조의 변화와 도시경험. 서울학연구. 20권.
11. 김지홍·전봉희 (2009). 1926~1928년 동아일보 「순회탐방」 기사의 ‘명승고적’ 편의 성격. 한국건축역사학회 춘계학술발표대회 논문집.
12. 김제정 (2014). 식민지기 ‘지역’과 ‘지역운동’ -1930년대 초반 경성지역을 중심으로-. 향토서울. 86호.
13. 김하나·전봉희 (2009). 1920~1930년대 동아일보 기사에 나타난 경성의 교외. 한국건축역사학회 춘계학술발표대회 논문집.
14. 김현진 (2017). 1900년대 近代 都市의 주변과 거주민의 삶- 光武 7년(1903) 漢城府 城外 戶籍을 중심으로. 한국학연구. 44집.
15. 권용우 (1985). 교외지역의 개념과 유형에 관한 고찰. 국토지리학회지. 제10권.
16. 박세훈 (2000). 1920년대 경성도시계획의 성격 : 「경성도시계획연구회」와 ‘도시계획운동’. 서울학연구. 15권.
17. 박은숙 (2009). 개항 후 서울의 자본주의 도시화와 공간 재편. 향토서울. 74호.
18. 서정호 (2013). 일제강점기의 지리산 탐방 목적에 관한 연구. 한국산림휴양학회지. 한국산림휴양학회. 17권 4호.
19. 양보경 (1994). 서울의 공간확대와 시민의 삶. 서울학연구. 1권.
20. 염복규 (2004). [근대성연구]식민지근대의 공간형성 - 근대 서울의 도시계획과 도시공간의 형성. 변용. 확장. 문화과학. 통권 39호.
21. 염복규 (2005). 1920년대 京城도시계획운동의 전개와 성격. 국사관논총. 통권 107호.
22. 염복규 (2013). 식민지 도시계획과 ‘교외’의 형성. 역사문화연구. 46집.
23. 유승희 (2013). 식민지기 경성부 동부 교외지역의 실태와 도시 개발-고양군 송인면에서 편입된 지역을 중심으로. 역사와 경계. 통권 86호.
24. 유승희 (2012). 1920~1930년대 경성부 주택문제의 전개와 대책. 아태연구. 19권(2호).
25. 이경구 (2004). 법전을 통해 본 17~18세기 서울의 변화. 서울학연구. 25권.
26. 이경아 (2016). 1920-30년대 경성부의 문화주택지개발에 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22권(3호)
27. 이태진 (1995). 18-19세기 서울의 근대적 도시발달 양상. 서울학연구. 4권.
28. 최인영. (2010). 일제시기 경성의 도시공간을 통해 본 전차 노선의 변화. 서울학연구. 41권.
29. 최영준 (1984). 조선시대 한양의 교지역 연구. 문화역사지리. 1권.

[논문접수 : 2021. 03. 26]  
 [1차 심사 : 2021. 04. 19]  
 [게재확정 : 2021. 05. 25]